사찰 내 불교문화 해설, 新 포교 원동력

부산불교교육대학 불교문화학과 인기 높은 이유는?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불자는 아니지만 주말마다 취미 삼아 산과 사찰을 찾아다니는 A씨. 그는 안식을 얻기 위해 고즈넉한 산사에서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마주하곤 한다. 하지만 여느 사찰을 둘러봐도 불교문화나 사찰에 담긴 옛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이가 없어 매번 아쉬움을 느낀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각 사찰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한다. 일반 문화해설사와는 달리 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포교사로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불교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1월 9일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새로 개설한 불교문화학과 수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수업 주제는 '관음전과 수월관음도 그리고 지장전과 감로도'였다. 수강생들은 어람관음(물고기가 담긴 바구니를 든 관음)과 하얀 빛깔로 청정함·자비를 상징하는 백의관음보살 등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한 불교문화에 귀 기울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서 깊은 불교역사·문화
현장서 알릴 전문인력 부족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으로
문화 확산·포교 활성화 도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불교문화학과를 통해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 중이다. 사진은 지난 1월 9일 진행된 수업.

강의는 지난해 9월 신설됐으며 오는 2월 13일을 끝으로 학기가 종료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며 현장학습 및 삼사 순례를 통해 직접 불교 문화재를 마주하는 기회도 갖는다. 강의 내용은 불교문화 개론 및 불상과 수인, 불교우주론을 담은 가람배치 등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85명이 수강 신청해 대학 내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거제도에서 매주 강의를 찾아오는 천주교 신자가 있을 정도로 종교의 벽을 두지 않았다. 종강 후 매년 강의가 새롭게 마련되며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문화포교사' 민간 자격증 인허가 심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한국 전통문화의 80% 이상이 불교문화다.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 잘 설명해줄 인력은 많지 않다"면서 "역사가 짧은 기독교에도 '기독교문화해설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교에 해설사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기존 문화해설사와 달리 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알고 불자와 일반인에게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학과를 신설했다"고 불교문화포교사 양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해설을 넘어 일반인에게 쉽게 불교를 알려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수업 전과 후 사찰 방문에 큰 차이가 생겼다"면서 "강의는 포교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71·총동창회장) 씨는 "신행생활을 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강의를 듣고 난 후 사찰 문화재 안내판마저 새롭게 느껴진다"며 "관세음보살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알게 된 뒤에는 집에 모신 관음보살님이 더 애틋해지고 신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준동(58·부학장) 씨는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이 됐지만 불교문화학과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일반인이 경전을 중심으로 불교를 접하기엔 내용이 쉽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즐겁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설명하기에는 불교문화가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사찰과 연계해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현재 불자 300만 명 감소와 탈종교화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불교문화포교사가 새로운 포교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도심 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 대표주자다. 현재까지 졸업생 1만5,000여 명과 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부산남구불교聯 나눔으로 새해 열다

600만원·쌀 2400㎏ 기탁

부산남구불교연합회가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과 자비의 쌀을 나눴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8일 부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남구불교연합회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600만원과 쌀 2400㎏을 전달하고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성금과 쌀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전달됐다.

회장 지원 스님은 "지역 사찰 및 신도들의 신심으로 모아 온 정성"이라며 "어려운 이웃 위해 잘 회향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따뜻한 버팀목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구불교연합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2013년 10월 수영구·남구불교연합회에서 남구불교연합회로 분리, 재창립됐으며 2014년부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하성미 기자



고창 선운사가 지장천불 조성을 위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천불을 점안해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회향법회서 선운사 대중이 예를 올리는 모습.

지장성지 면모 다진 고창 선운사

지장천일기도 회향… 천불 점안법회도

지난 2014년 4월 입재해 3년여 간 진행된 고창 선운사의 지장보궁 지장천불 조성 천일기도가 원만 회향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7일 지장보궁에서 지장천불 조성을 위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지장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점안법회는 삼화삼청, 신중작법, 점안식, 관음시식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운사 승가대학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과 선운사 대중스님, 천일기도에 동참한 불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천일기도와 지장천불 조성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선운사 사부대중은 불자들의 기도 원력을 바탕으로 기도와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운사는 천일기도를 진행하면서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하는 등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면서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왔다. 지장성지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는 이번 지장천불 점안을 계기로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운사는 1월 6~10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단기출가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각박한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는 총 7명이 동참해 한국불교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예불, 좌선, 1080배, 걷기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매일 발우공양으로 점심공양을 했으며,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오후불식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불교 새해 목표, '전통계승·사회공헌'

부산불교연합회, 5일 신년하례회… 사업기조 발표

부산불교 승·재가가 한 자리에 모여 1년간 일궈나갈 목표를 공유하고 의지를 다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5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는 2018년 주요사업으로 △부산연등축제 통한 불교문화와 전통 계승 △팔관회 중심으로 뿌리내리는 인간성 회복 운동 △범어사와 사명대사 추모대재 중심으로 호국불교 역할 담당 △부산 16개 구군불교와 재가 신행단체 화합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에 방치돼 있는 귀무덤 발굴과 위령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호국불교 역할을 맡아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 불자의 신심과 신행 결집체"라며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법의 등불을 켜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년하례회는 주요사업 보고 및 봉행사, 격려사, 공로상 시상, 축사 및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상은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가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 심산 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계 주요 인사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는 1월 9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국가의 평화와 발전, 정치안정과 더불어 2월에 열리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탈 종 공 고

사찰명 : 보광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 4길 8-59 • 법명(속명) : 용수(양택근) / 법화(박향림)
사찰명 : 천궁암	• 주소 : 대구 동구 송정 1동 318번지 • 법명(속명) : 소운(최두현)
사찰명 : 정화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북면 연춘리 243-1 • 법명(속명) : 경천(김의중)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사)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 급 품 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엠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